

이대 서울-목동, 병원별 특성화 ...차별된 경쟁력 확보

심봉석 의무부총장 취임



▲ 심봉석 신임 이화여자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.

이대서울병원 성공적 개원과 안정화에 역점

심봉석 신임 이화여자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이대서울병원의 성공적 개원을 위해 안정적이고 효율적 경영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.

새로운 경영진의 임기 중 이대서울병원의 성공적

개원과 조기 안정화를 위해 단계별로 병원 개원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는 의지다.

또 서울이대병원과 목동이대병원을 각기 특성에 맞게 발전시켜 병원별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겠다는 포부다.

이와함께 '소통과 화합, 합리적 효율'이라는 슬로

건에 맞게 조직별 인력의 역량 발휘에도 역점을
뒤 진료 시스템 향상과 병실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
다는 목표다. 심봉석 의료원장은 "강서구 마곡지구
에 자리를 잡은 이대서울병원은 지리적 특성에 맞
게 국제 의료 허브 병원으로 의학 교류를 활성화하
는 가교 역할을 수행할 계획"이라며 "이대서울병원
의 성공적 개원과 이대목동병원의 지속적인 성장
발전을 위해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을 '기본에 충
실한 병원'으로 만들어가겠다"고 말했다.

심 의료원장은 "양 병원 체제에서 병원별 특성과
전문화는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이 균형적으로 발
전할 수 있는 핵심 도구가 될 것"이라면서 "병원별 특
성과 전략에 따라 양 병원 모두 차별화된 경쟁력을
확보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"고 말했다.

그러면서 "4차 산업혁명에 발맞춰 의료기기를 중
심으로 하는 융복합의료 산업의 육성, 의료기기
임상연구 중개 시스템 개발, ICT와 연계된 스마
트 헬스 케어 사업 등 향후 부가가치가 높아질 의
료 산업에 대한 연구와 개발을 가속화할 수 있는
인프라 조성에도 주력하겠다"면서 "환자 중심 경
영을 최우선 경영 과제로 삼아 국민 건강을 지키
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하면서 친밀감 있고 신뢰성
있는 병원으로 다가갈 것"이라고 밝혔다.

이대서울병원, '병실 환경 개선' 선봉에 서다

이대서울병원은 국내 대학 병원 중 처음으로 기준
병실 3인실, 전 중환자실 1인실 등 새로운 병실
구조로 설계돼 감염관리에 취약한 우리나라 병원
진료 시스템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것이라는
기대를 모으고 있다.

상급병실 차액을 부담하지 않는 일반병실 3인실
위주로 구성해 감염예방, 쾌적한 병실 환경을 제

공한다.

병원측은 전체병상을 1인실로 설계한 중환자실도
법적으로 정해진 중환자실 입원비만 부담하고 사
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.

이대서울병원은 3인실 606병상, 2인실 72병상,
5·10인실(특수병실 : 준중환자실, 뇌졸중집중치
료실) 60병상, 1인실 129병상, 특실(VIP, VVIP
실) 51병상, 중환자실 96병상 등 총 1014병상
으로 구성되는데 3인실뿐만 아니라 2인실도 내
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되면 일반 병실료를 부
담하면 된다.

현재 이대서울병원은 2011년 착공해 건립 중에
있으며 2018년 9월 완공, 2019년 2월 개원을 앞
두고 있다.

심봉석 의료원장은 "이대서울병원은 의료 문화 자
체를 바꾸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
고 있다"면서 "감염우려를 철저히 차단하는 병원
으로 설계돼 메르스와 같은 감염성 질환 관리에 대
비해 공조 시스템이 분리된 호흡기내과 병동 설치,
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음압 격리 병동 설치, 응급
의료센터 내 음압 격리실 설치로 국제 수준의 감염
관리 시스템을 갖춘 병원이 될 것"이라고 말했다.

심 의료원장은 "이대서울병원은 5대 암, 심뇌혈관
질환, 장기이식, 척추질환 등 고난이도 중증질환
을 특화, 육성하게 되며, 미래형 질환에 대한 산학
연 공동연구 역량 강화, 첨단 국제진료센터와 프
리미엄 건강증진센터 운영으로 대한민국은 물론
세계 시민이 믿고 찾을 수 있는 국제적인 수준의
병원으로 탄생할 것"이라면서 "병원 안내, 예약,
입원과 퇴원, 진료 결과 확인 및 상담 등 모든 과
정에 최신 IT 기술을 적용한 미래 지향적 병원이
될 것"이라고 강조했다.

문윤희기자/MP저널